

<울법이 아닌 사랑에 깨어있으라>

로마서 13:8-14

안녕하세요. 저는 Richard 목사이며 Willingdon 교회 Care 부서 목사 중 한 명입니다. 본당과 온라인에 계신 분들 환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녀들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들이 세례 받고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게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며 이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삶의 이야기들은 힘이 있습니다. 우리 중 어느 누가 깨닫는 것보다 더 큰 힘이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 앞에 어떻게 나아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텍사스 달라스에 살 때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의 진짜 이름은 아니지만 그 사람을 바비라고 부르겠습니다. 바비는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삶이 불안정했고 고통을 잊기 위해 마약과 술에 의존했습니다. 결국 바비는 일을 못 하게 되었고 다시 직장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바비의 옆집 이웃은 기독교인이었고 큰 교회에 다니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웃이 바비에게 파트타임 일을 소개해 주었고 그 일은 교회의 시청각 장비 설치를 돕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어느 날 Bobby가 전화를 받기 전까지는요.

픽업트럭에 앉아 있던 어느 더운 날, 그는 다음과 같은 무서운 말을 들었습니다. “바비, 네가 교회에서 만 달러 상당의 장비를 훔친 것을 알고 있어.” 바비는 수많은 교인들과 교제를 나누면서도 그의 마음은 복음으로 인해 전혀 변화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이 들켰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의 마음은 내려앉았습니다. 그 사람은 다시 감옥에 갔을까요? 그의 아내와 아이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 지도자들은 현실적인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비에게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야 하는가?..... 안타깝게도, 우리 대부분은 “그 사람이 정말 그랬나?”라고 생각하거나 또는 “왜 그랬을까?” 또는 “비 기독교인한테 봉사 자리를 주고 비싼 장비 rux에 두었으니 이런 일이 생기지...” 하며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은 법과 처벌로 기울고 사랑과 은혜로는 거의 기울어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바비를 도우려고 하다가 상처를 입은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에는 항상 그러한 위험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우리는 꼭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적으로 사랑을 행할 때, 먼저 다가가는 사랑이어야 하며, 고통과 희생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는 이런 사랑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답해야 할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야 하는가?입니다. 특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 신체적이나, 언어적으로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심지어 나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사람에게 말입니다.

로마서에서 어느 부분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는 사람들 사이의 사랑의 중요성과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부와 시민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의무의 중요성을 모두 강조했습니다. 그런 다음 갑자기 사랑에 관한 대화로 다시 돌립니다. 이러한 사랑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유일한 사랑이며 우리가 구원을 올바르게 실천하는 데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세 가지를 통해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1. 문제(율법에 관련하여).
2. 해결책(사랑에 관련하여).
3. 적용(생활에 관련하여)

로마서 13장 8절부터 시작하여 14절을 펴주세요. 로마서 13장 8절부터 14절까지. 다 같이 일어나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 8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 9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 10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본문 1: “율법이 사랑을 막지 못하게 하십시오”(13:8-9) – [문제]

첫 번째 요점은 “율법이 사랑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이제 금해야 할 것은, 율법을 지키니까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돈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3:7에서는 우리가 빛진 것에는 존경이나 정직과 같이 꼭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란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이 단어의 의미는 “...특정 기대를 충족할 의무가 있다”입니다. 다른 번역에 8절을 “서로에 대한 사랑의 빛 외에는 누구에게도 빛을 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본질적으로 다음과 같이 권고하고 있습니다. “빛을 모두 청산하십시오.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는 한 모두 갚으셔야 합니다!”

MUM \$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빛을 갚지 않아도 전혀 문제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은행 계좌를 보지도 않았고, 신용카드 대금도 갚지 않았습니다.. 회피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를 찾아오신 후, 저는

어머니께 5,000달러의 빚을 졌다는 것이 기억났고, 열심히 일하고 저축해서 어머니께 모든 빚을 최대한 빨리 갚아 드렸습니다.

임대료

많은 사람들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거나 부채를 갚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뉴스 보도에 따르면 메트로 밴쿠버 지역의 많은 임차인은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대료가 너무 비싸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 교회에 이런 분 계신다면, 룸메이트를 꼭 찾아서 짐을 줄여주고 간증도 해주십시오!

8절로 돌아가서, 바울은 말합니다. “남에게 금전적 빚을 지는 삶을 살지 말고, 오히려 사랑에 빚진 자처럼 살아가십시오.” 그렇습니다. 지난 주일에 멜 목사님이 [아주 간략하게!] 언급하셨듯이 우리는 정부에 세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할 의무”가 훨씬 더 많습니다. '서로'는 누구입니까? 모든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의 상사와 시어머니 포함입니다 [그 시어머니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면 주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서로"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독교인과 비 기독교인 모두를 사랑해야 합니다.“악을 미워하고 선을 강력하게 붙잡는 진실한 사랑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로마서 12:9 –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것이 사랑의 의미라면 바울이 말하는 율법은 어떤 걸까요?

9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리고 다른 계명은 모두 이 단어 안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바울은 약 1500년 전에 이스라엘에게 준 모세의 율법, 십계명을 인용했습니다. 바울은 왜 서로 사랑하는 맥락에서 율법을 인용했을까요?

역사 기록에 따르면 바울이 이 말을 썼을 당시, 로마에는 세금을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라고 권고한 이유 중 하나는 로마 교회가 그런 흐름에 영향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궁극적으로 바울이 알았던 것은, 로마 교인들이 그 시대의 문화적 압박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법이 아니라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이 시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 십계명 중 네 가지만을 포함시켰습니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이 호소했던 것은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돌 판 5계명부터 10계명이 자세히 언급된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의 깊이를 내는 거울이 되며, 우리에게 예수님이 왜 필요한지를 보여줍니다. 특히나 우리가 형제를 변함없이 사랑하지 못할 때입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하고,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모세를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바울은 율법을 지키는 기준과 율법의 법이 외적인 것에서 내적인 것으로 옮겨짐을 보여줍니다

(즉, 정육은 이제 “마음의 간음”이고 분노는 이제 “살인”입니다). 바울보다 수백 년 전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돌에 새겼던 것이 이제는 우리 마음에 새겨졌다”라고 썼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렘 31:33)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있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결코 우리가 다 완성하는 목적이 아니었는데 왜 우리는 그래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까요?

기독교인이 되자마자 생긴 습관은, 아침 일찍 일어나 커피 한 잔을 마시고, 독서 의자에 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저는 45분 동안 앉아서 일기를 쓰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저의 일상 습관이었습니다... 아이를 갖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밤중에 우유를 먹이고 기저귀를 더미에 파묻히면서, 아침 목상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Jadon을 갖고 처음 몇 년 동안 얼마나 죄책감을 느꼈는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가족을 실망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젊은 부모님들이 계신가요?

은혜에 대한 진지한 연구와 신앙적인 멘토가 필요했고, “우리에게는 시간과 에너지가 많을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듣고 묵상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만큼 여건이 안 될 때에도 하나님은 모두 알고 계십니다. 바로 그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에 죄책감이 느껴지시나요? 교회 출석? 섬김? 십일조? 성경 읽기 계획이요?

우리가 의무감으로 성경을 읽는다면, 성경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유일한 곳인 우리 마음에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법칙으로 삼는 순간 그 사랑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며 우리는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진정으로 사랑할 수도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기준”에 비춰 사람들을 보게 될 것이고, 결국 사람들은 떠나고 하나님마저 떠나게 만들 겁니다.

문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뭔가를 더 열심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코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가 아니라 왜 그 일을 하는가입니다. 그것은 모두 마음에 관한 것이고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본문 II: 이웃 사랑을 시작하세요(13:10)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두 번째 요점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다르게 말하면, 자신을 덜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주신 사람들을 더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정의에 따라 사랑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세상이나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사랑이 아닙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진리에 뿌리를 두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미워합니다. 기준은 완벽함입니다.

누군가에게 정말 친절하게 대하는 것만으로 또 다른 누군가에게 못되게 구는 것이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매일 아이들에게 소리치거나 고향을 지르지는 않아.” 또는 “내가 가족이 필요한 모든 것을 해주니까, 아내 말고 다른 애인을 옆에 두어도 괜찮아.”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정당화할 다른 조항은 전혀 없습니다!

윌링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웃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나요? 우리 자신에게 솔직해져야 합니다. 사랑이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럼 내 이웃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대답하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의 이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고 선한 이웃이 될 때 사랑하게 됩니다.

10절로 돌아가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러면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이웃이 누구인지 압니다. 그러면 율법을 “완성”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완성한다는 의미는 “특정 요구에 따라 완전함을 이룬다”입니다. 바울은 율법이 선하지만 율법을 주신 하나님에 비하면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과 네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두 가지 큰 계명 외에, 다른 계명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인간은 절대로 율법이 요구하는 완벽한 순종을 할 수 없습니다! 율법이 인간의 사랑으로 완전히 이루어질 수 있었다면 이미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 때문에 아무도 자기 이웃을 완전하게 사랑하지는 못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로마서 13:10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이 불완전한 사랑으로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우리가 “선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새로운 규칙과 법을 만드는 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요점입니다.

본문 III: 온전한 사랑의 기회에 깨어 납시다. (13:11-14)

11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12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13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14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깨어서 온전하게 사랑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 이웃을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일을 어떻게 사랑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11절 -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 선한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 구절에서 바울은 “지금 현재”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로마 교회의 현재 생활과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바울과 베드로와 같은 신약의 저자들은, 최후의 심판을 지적했고, 그것은 신자들이 시급하게 도덕적으로 행동을 하도록 격려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시와 때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림에 얼마나 준비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11 절 중간 –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게으르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무기력해지면 안 됩니다! 삶의 운전대 앞에서 잠을 자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리고 우리는 왜 깨어 있어야 할까요? 왜냐하면 주님의 구원이 가까웠고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잠을 자고 있다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보상도 받지 못할 것입니다)!

2006년에 저는 장학금을 받고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어를 공부했습니다. 파티도 하고 재밌게 놀다가 기말고사 당일 아침에 잠을 잤습니다. 잠에서 깨어 정신없이 시험장으로 달려갔던 기억이 납니다. 5분 늦었는데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원칙적으로 1년 졸업장을 못 받고 '수료증'이 아닌 '출석 증명서'를 받고 떠났습니다. 그 해 저의 "노력"에 대해 아무것도 보여줄 것이 없지만 학교가 옳았습니다.. 제가 게을렀던 것이니까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가 게을러도 어떤 상을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숫자를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이번 달에 몇 명에게 복음을 전했는지, 몇 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책임이 얼마나 시급한 것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예수님의 재림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이 언제 끝나

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시급하게 로마 교회가 깨어나서, 하나님께서 교인들이 어떻게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지 아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로서 우리는 어디에서 깨어나야 합니까?

12절 -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기에서 바울은 비유를 사용합니다. 11절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깨어나라”라는 권고를 고려하여 “밤”, “낮”, “어둠”, “빛”을 사용합니다. 바울의 다른 글들(골 1:13-14, 3:8 등), “밤”과 “어둠”은 일반적으로 우리의 땅에서의 생활(죄와 영적 상실로 오염되고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곳)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낮”과 “빛”은 일반적으로 우리의 하늘의 현실과 미래(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되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거듭남)를 나타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밤”과 멀다는 것은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며, 빛의 왕국 안에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니 정말 변화된 것으로 생각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옛사람은 없고 씻겨 새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의 말에는 시급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에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교회에 박해가 임박했고, 바울은 로마 교인들이 스스로 준비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임재 안에, “빛” 가운데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준비하기 위해 우리 역시 절대로 “어둠”을 입지 말고 “빛의 갑옷”(즉, 거룩함)을 입어야 합니다.

13절 -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여기에서 바울은 그 당시 교인들(그리고 오늘날의 우리)에게 어둠의 일에 관여하지 말라고 강력히 권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2절에서 무엇을 “버리거나” “강제적으로 던져버려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예를 들어줍니다. 그리스도인은 빛에 속함으로 술 취함, 음행, 다툼, 시기 등의 행위와 아무 상관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한 어둠의 “열매”는 “올바른 행위”와는 아무 관련이 없으며,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인임에도, 이 “악한 열매를 맺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니면 과거에 악을 행하고 숨기려고 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고백과 회개, 주님 안에서, 은혜의 공동체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에 답이 있습니다.

저는 월링던 교회가 이러한 “어둠의” 열매를 빛 가운데로 가져올 수 있는 안전한 장소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추는 만큼 아픕니다! 그러니.. 치유의 과정이 쉽지 않은 길이겠지만, 죄를 고백함으로 그 첫걸음을 저희 안전한 공동체에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Freedom Session이나 Pure Desire에 등록하시면 성에 관련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새 그룹은 6월 초에 시작됩니다!)

14절 -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즉 그분의 완전한 의를 안다는 의미입니다. 시편 저자는 “주의 제사장들이 주의 의로 옷 입게 하소서”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갈 3:27)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것을 “입은” 사람들과 “새” 사람을 입게 될 사람들의 삶에는 분명한 선이 있습니다.

(엡 4:24)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서 분명한 가르침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옷 입”을 때, 그 육체는 의로 덮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여정은 힘든 여정이며,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기회를 항상 잘 잡는 것은 아닙니다. “죄책감”을 느끼고 율법주의로 향하는 대신, 순종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육체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죄를 지을 의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에게 바라시는 것에 반대되는 방법을 계획하거나 소망해서는 안 됩니다. 음란한 장면이 있다면, 그 영화를 보면 안 됩니다. 취할 것 같으면 맥주를 마시면 안 됩니다.

육신 강하고 죄는 언제나 기분을 좋게 하지만, 육신을 따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기회에 “깨어”있으면, “주님, 제가 할 수 있을까요?”라고 묻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주님, 제가 이것을 할까요?”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율법주의에 있는 사람입니다. 의심할 여지없이 “율법 안에서 사랑은 불가능” 할 것입니다(우리의 첫 번째 요점). 두 번째가 올바른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주권 안에서 그분의 완전한 권위에 순종하는 선택을 하려는 의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섹스, 술, 약물 중독과 싸웠던 개인적인 경험과 12년 이상의 리커버리 그룹 운영을 통해, 사람들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을 때 그 결과는 그들이 어떤 질문을 하느냐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하며 걱정하는 사람들은 계속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원칙에 대한 태도가 전혀 변화가 없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며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모릅니다. 두 번째 질문 “이걸 해야 하는 할까?”를 질문하는 사람은 이미 “자신만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우선순위에 둔다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의 의미인 것입니다. “할 수 있을까 가 아니라 “해야 할까”라는 생각에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윌링던 성도 여러분, 깨어납시다! 여러분과 저는 사랑하기 위해 구원받았습니다!

율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더 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땅한 반응은 단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할 것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히 함께 할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삶과 당신의 삶에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주시는 기회에 깨어 있습니다.

잠시 바비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달라스 교회는 어떻게 바비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줬을까요? 그는 적발되어 체포되었고 교회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을 개입시켜 바비를 체포하고 감옥에 가둘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그랬겠지만 그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복음의 핵심과 로마서 13장에 나오는 바울의 메시지를 이해했기에 교회는 바비를 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리더들과 협력하여 바비가 교회에서 빛을 갠 때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바비는 은혜를 받게 되었고 그의 인생은 영원히 바뀌었습니다. 교회는 바비를 사랑했고 바비는 큰 감동을 받아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께 바쳤습니다.

바비의 삶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교회의 사랑으로 크게 변화되어, 교회는 결국 바비에게 정규직을 제안했습니다. 이 교회는 사랑할 수 없는 이웃을 사랑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에 깨어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시는 바비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라이프 그룹이나 가족 중에 있나요? 윌링던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사랑의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보내실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서 그 사랑을 계속 실천하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는 겁니다! 아멘!